

## 육우군납의 지속,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 필요



박봉식 차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소 키우는 것, 어렵지~ 않아요~. 100만원이면 소 100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2012년 초 주가를 올렸던 개그맨 최효종 씨가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소 값이 만 원대로 폭락한 것을 두고 풍자한 대사였다.

그 당시 개그풍자가 나올 만큼 심각했던 육우 값 폭락을 해결코자 정부와 농협은 ‘군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국방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로 ‘육우고기 군납물량 확대사업’을 실시했다.

‘육우고기 군납물량 확대사업’은 국내산 쇠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당시 수입쇠고기 공급물량을 전량 국내산 육우로 대체하고 기존 육우 공급량을 포함해 두 배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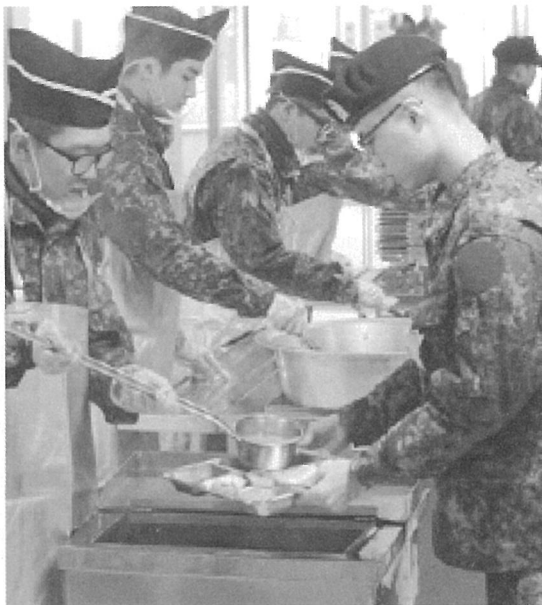
사업 실시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군에 주로 공급되는 육우거세 2등급 도매시장 가격이 5개월만에 평균 Kg당 7,549원에서 10,408원으로 38% 가까이 크게 상승했다. 마리당 약 114만원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렇게 군 급식 수입쇠고기 공급 물량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는 수입쇠고기 대체사업이 시작되었고, 농협은 국내산 한·육우를 추

가로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수입쇠고기 품목을 군 급식에서 삭제하고 전량 국내산 한·육우로 대체하여 항구적인 국내산 축산물 공급 기반 여건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농협의 군납사업

농협의 군납사업은 농가, 조합, 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 모델이다. 중앙회는 군납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및 지도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며, 지역조합은 농축산 경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군 입장에서는 계통출하를 통해 전·평시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써 군 급양 향상 및 성실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군납사업을 통해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군납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있어 군과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인 농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군 급식 육우고기 공급사업 그 이면에는 어려움도 많다.

먼저 육우시장은 한우시장 대비 작은 시장이다. 군과 농협 입장에서 전·평시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작다보니 수급이 어렵다. 작년 도축현황을 보면 한우는 92만두인데 비해 육우는 67천여두에 불과하다. 작년 한우는 3천톤, 육우는 2천톤을 군 급식한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육우 시장은 턱없이 작다. 그래서 육우는 한우대비 4% 정도를 도축했지만, 군 급식은 한우 대비 65%에 달한다. 다시 말하면 육우 시장 규모나 상황에 비해 현재 군 급식 비율 및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은 출하량의 부족이다. 농협은 군에 계획된 육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때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정 물량을 구매해야 한다. 이는 시장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다시 높은 수취가격을 받기 위한 농가들의 출하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또 다시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악순환을 겪곤 한다. '12년 군납단

가에 비해 현재 육우 군납단가는 52%나 상승되었다.

게다가 한우와 달리 육우는 시장이 작아 부분 육 유통이 제약되어 있어 지육으로만 구매해 작업하다 보니 군 급식 되지 않는 군납제외부위가 발생한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육우를 구매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군납제외부위 재고를 증가시킨다. 군납제외부위는 시중 판매도 쉽지 않을 뿐더러 늘어난 재고는 창고비 등 비용을 증가시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군납육우를 취급하는 사업소는 매년 수십 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급식으로 인한 육우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실수요자인 군(軍)은 수급 및 예

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급 및 공급을 수행하는 농협은 역시 수급 및 경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우 농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오로지 군납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육우사육 농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육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다가오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새로운 육우시장 확대를 위해 육우 생산자들을 비롯,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부단한 노력으로 힘써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농가, 정부, 농협, 관련협회 등 군납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육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

